

일상대화에서 한국어 고급 학습자의 인용구문 사용 양상 연구

중국어권 학습자의 경우

채숙희

인천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국어학 전공
sukichae@incheon.ac.kr

- I. 머리말
- II. 자료의 구성
- III. 인용구문 사용 빈도
- IV. 인용구문 사용 양상
- V. 맺음말

I. 머리말

인용은 전통적으로 '다른 사람이 말하고 있거나 말했던 것, 생각하고 있거나 생각했던 것, 또는 이전에 자신이 말했거나 생각했던 것을 전달하는 행위'¹⁾로 규정된다. 이러한 인용이 인용동사가 형성하는 구문으로 실현되는 것을 '인용구문'이라 할 수 있다.²⁾

그간 한국어 교재에서는 '-다고 하다, -냐고 하다, -(으)라고 하다, -자고 하다'와 같이 간접인용구문의 피인용문 종결어미와 인용표지 '고', 그리고 인용동사 '하다'가 결합된 형식, 그리고 '-대요, -내요, -(으)래요, -재요'와 같이 간접인용구문에서 피인용문 종결어미와 인용동사 '하다'가 융합된 형태를 중심으로 하여 인용구문을 다루어왔다. 한국어 인용구문의 교육과 관련된 연구에서도 간접인용구문의 교육과 관련된 논의, 특히 '-다고, -냐고, -(으)라고, -자고'와 같은 간접인용구문의 피인용문의 종결어미와 인용표지 '고' 결합형의 형태 교육과 관련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³⁾ 이와 같은 논의들에서는 직접인용구문을 간접인용구문으로 바꾸게

1) Jespersen, O., *The Philosophy of grammar*(London; New York: Allen: Holt, 1924), p. 290.

2) 이필영(1993: 27), 권재일(1998: 60), 채숙희(2011a: 33) 등에서는 인용동사가 피인용문을 보어로 취하여 형성하는 구문을 인용구문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규정을 따른다. 이필영, 『국어의 인용구문 연구』(탑출판사, 1993); 권재일, 「한국어 인용구문 유형의 변화와 인용표지의 생성」, 『언어학』 22권(1998), 59-79쪽; 채숙희, 「현대 한국어 인용구문 연구: 구어 자료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1a).

3) 이러한 논의로는 서유연(2009), 황양희(2009), 고경태(2010), 김순일(2010), 김지혜(2010), 한정(2010), 김현숙(2011), 이운정(2011), 관학걸(2012)이 있다. 그 외 인용구문 교육을 다룬 논의로는 김정은(2008), 장미라(2008), 강현화·황미연(2009), 이금희(2009), 김지혜(2011), 채숙희(2011b), 윤현애·윤정원(2012) 등이 있다. 김정은(2008), 강현화·황미연(2009), 이금희(2009), 김지혜(2011), 윤현애·윤정원(2012)에서는 기능 중심의 인용구문 교육을 강조하였고, 장미라(2008)에서는 인용구문 교육 내용의 선정기준과 배열의 원리를 제시하였다. 채숙희(2011b)에서는 한국어교재 대화 텍스트의 인용구문을 구어 교육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김정은, 「한국어 인용 표현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8); 장미라, 「한국어 인용문의 교육 내용 선정과 배열에 관한 연구」, 『이중언어학』 제38호(2008), 419-438쪽; 강현화·황미연, 「한국어 교육을 위한 불평표현 문형 연구: 불평화행과 인용표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말연구』 제24호(2009), 5-31쪽; 이금희, 「한국어 교육에서의 간접인용문 변형」, 『반교어문연구』 26집(2009), 81-102쪽; 서유연, 「시각적 입력강화가 한국어 문법 학습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간접인용 표현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9); 황양희, 「외국인 학습자의 간접인용 교육 방안 연구」, 군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9); 고경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에 나타난 간접인용 표지 '-고'의

하거나 대화문의 빈칸에 적절한 피인용문을 써 넣게 하는 등의 서답형 과제 수행 결과를 분석하여 학습자들의 오류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간접인용구문의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간접인용구문 위주, 문어 위주의 교육과 연구는 문법 교육으로서 인용구문 교육과 구어 교육의 측면 모두에서 충분치 못한 점이 있다. 인용구문의 교육이라는 측면에서는 직접인용과 간접인용이라는 인용의 방식 모두를 제대로 습득하고 균형 있게 운용하도록 이끌지 못할 수 있다. 구어 교육의 측면에서는 문어에만 치중함으로써 학습자의 구어 이해와 구사에 제약을 줄 수 있다. 특히 인용구문은 문어와 구어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문법 교육의 대상으로 구어 인용구문과 문어 인용구문의 특성 구분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⁴⁾, 이러한 교육과 관련하여 기존의 문어 중심의 접근은 한계가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구어 자료 가운데서도 구어성이 가장 높은 일상대화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고급 학습자의 인용구문 사용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인용구문 교육과 구어 교육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한국어 인용구문의 습득과 관련된 학습자의 현황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교육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인용구문을 충분히 습득했다고 판단되는 중국어권 고급 학습자들이 실제로 발화한 일상대화 자료에서 인용구문을 추출하여 이를 한국어 모어 화자가 일상대화 자료에서 사용한 인용구문과 비교해봄으로써 학습자의 인용구문

검토], 『한국어 의미학』 33집(2010), 1-17쪽; 김순일, 「한국어 간접인용문의 효과적인 교육 방안 연구: 중국인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0); 김지혜, 「그림 보고 말하기를 통한 한국어 학습자의 간접인용 표현 교육 연구」, 『동남어문논집』 제30집(2010), 359-381쪽; 한정, 「한·중 인용법 대비 연구: 간접인용을 중심으로」, 인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0); 김지혜, 「담화 분석을 통한 한국어 간접인용 표현 교육 방안 연구」, 『이중언어학』 제46호(2011), 45-65쪽; 김현숙, 「간접인용문에서 의문문의 실현 양상과 한국어 교육에의 적용 문제」, 『어문연구』 제70집(2011), 29-52쪽; 이운정,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간접인용 표현 교육 방안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1); 채숙희, 「한국어 교재의 인용구문 분석: 구어 교육의 관점에서」, 『언어학 연구』 제25호(2011b), 303-322쪽; 관학걸, 「입력강화와 출력강화가 한국어 간접인용문 학습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2); 윤현애·윤정원, 「한국어 인용 표현의 담화기능에 관한 연구: 토론 담화의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문법교육학회 학술발표논문집』(2012), 1-13쪽.

4) 이효상(2005: 250-253), 채숙희(2011b)에서는 인용구문 교육에서 간접인용구문 위주, 문어 위주의 교육방식이 한국어 모어 화자의 실제 인용구문 운용과 거리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효상,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재와 문법 교육의 문제점」, 『국어교육연구』 제16집(2005), 241-270쪽; 채숙희, 앞의 논문(2011b).

사용 양상이 어떠한 점에서 모어 화자와 같고 어떠한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인용동사, 인용표지, 인용방식과 같이 인용구문의 기본적인 요소들과 함께 한국어 구어에서 널리 사용되는 ‘대’와 같은 축약형, ‘다고’와 같은 절단형의 사용 양상도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자료 수집과 분석은 기존 연구에서 시도된 오류 분석과 비교하여 인위적으로 통제된 시험 상황에서의 수집된 자료가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학습자가 자연스럽게 구사한 자료를 이용했다는 점, 쓰기 시험 등을 통한 문어적 자료 수집이 아니라 실제 발화를 녹음하여 전사한 구어적 자료 수집 방법을 사용했다는 점, 인용구문의 습득과정에 있는 초급이나 중급 학습자의 자료가 아니라 인용구문을 충분히 습득했다고 판단되는 고급 학습자 자료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이와 같은 시도는 그간 간접인용 위주, 문어 자료 위주로 이루어져 온 한국어 교육에서의 인용과 관련된 연구를 보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고급 학습자들이 한국어 구어를 실제로 구사할 때 인용구문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앞으로 인용구문 교육, 특히 구어에서의 인용구문 교육 시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자료의 구성

1. 한국어 고급 학습자의 일상대화 자료

이 연구를 위해 구축한 자료는 현재 한국의 대학원에서 한국어 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중국인 대학원생 11명(석사과정 10명, 박사과정 1명)의 대화를 녹음하여 전사한 것이다. 녹음에 참여한 학습자들은 한국어 학습 기간이 평균 6.3년, 한국어능력시험(TOPIK) 등급이 평균 5.2급인 고급 학습자들이다. 이들의 성별은 모두 여성이며, 연령대는 모두 20대로, 20대 중반이 8명, 20대 후반이 3명이다.

녹음에서는 이들에게 대화의 주제만 제공하고 주제별로 2-5명씩 한조를 이루어 대본 없이 5-10분간 자유롭게 대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대화의 주제는 72개를 지정해주고 나머지 8개는 자유 주제로 대화를 나누도록 하였다. 지정한 72개의 대화 주제는 비교대상으로 삼을 21세기 세종계획의 현대구어말뭉치의 '일상대화' 자료의 주제에 최대한 근접하도록 설정한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1) 가족, 감기, 강의, 결혼, 공연, 관광명소, 광고, 교육, 교통수단, 군대/병역, 날씨, 대중가요, 대통령 선거, 대학 진학, 도서관, 동아리, 머리 모양, 물건 구입, 미용실, 미팅, 방학, 배우, 병원, 사랑, 사주/관상/미신, 사진, 생일, 석사논문, 성격, 수강과목, 수강신청, 수업 발표, 시위, 시험, 식당, 식사, 식생활, 식이요법, 여가, 여행, 연극, 연애, 연예가, 영화, 외국어시험, 외모, 운전, 유행, 음악, 음주 문화, 이십대, 인터넷, 전쟁, 젊은이들의 놀이문화, 정치와 경제, 종교, 직업, 진로, 진학, 질병과 건강, 책/서점, 취미, 취업, 친구, 하루 생활, 학교생활, 학비/경제적 독립, 학원, 화장품, 회사생활, 휴식시간, PC방/게임

이상과 같이 구축한 자료는 총 711.25분 분량으로, 어절 수는 총 5만 9,539어절이다.

2. 한국어 모어 화자의 일상대화 자료

한국어 고급 학습자의 일상대화 자료와 비교할 한국어 모어 화자의 일상대화 자료는 21세기 세종계획의 최종 성과물(2011. 12. 수정판)의 현대구어말뭉치 가운데 '일상대화' 말뭉치이다. 이는 주제별로 83개 파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8만 3,092어절이다.⁵⁾

'일상대화' 말뭉치의 대화 참여자는 주로 20-30대의 대학생들이나 대학 원생과 회사원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성별은 남녀 골고루 포함되어 있다. 주제별로 최소 2명에서 최대 10명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

각 말뭉치 파일의 주제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2) 가족과 사랑에 대해, 감기 이야기, 강의 시작 전 7인#1, 강의 시작 전 7인#2, 개인담#1, 건강 이야기, 과외수업#2, 과외수업#3, 과외지도, 관광명소 등에 대해, 광고토론, 교육, 교육에 대해#2, 교통수단, 군대#1, 날씨에 대해, 대통령 선거, 대학생

5) 21세기 세종계획의 현대구어말뭉치에서는 92개의 말뭉치 파일(42만 7,433어절)이 일상대화자료로 표시되어 있으나 각 파일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 가운데 9개는 일상대화가 아닌 토론, 강연 등이어서 이 연구에서 다루는 일상대화 자료에서 제외했다.

2인 잡담#1, 대학생 2인 잡담#2, 대학생 3인, 대학생 3인 잡담, 대학생 4인 잡담, 대학생 놀이문화, 대학생 동아리 문화, 대학 진학, 도서관에서, 동아리, 머리에 대해서 #2, 물품구입, 미팅, 미팅 #2, 방학에 대해, 버스에서 친구들과, 병역, 삼삼대, 생일·결혼 이야기, 수강과목, 수강신청 과목, 스포츠중계(축구), 식사, 식사 잡담, 식사 중 대학생 2인#1, 식사 중 대학생 2인#2, 식사 중 대학생 3인, 식사 중 회원 3인, 식생활에 대해, 식이요법, 아버지 학교생활, 언어와 사회토론, 여대생 10인 잡담, 연애 에피소드, 연애가, 영화#2, 영화와 민족, 영화와 배우, 영화와 연극, 오디오EQ, 외국어시험, 운전면허에 대해, 이라크전쟁과 한반도, 이야기 만들기, 인터넷사이트, 일상#1, 재수강과목에 대해, 저녁식사#2, 점심식사, 정치와 경제, 직장생활, 질병과 건강, 촛불시위, 취미, 취업, 칠레, 콘술#1, 하루 생활, 학생운동, 학원 강사와 고등학생, 향수와 영화, 화장품, 황사, 후배들과 대화, 후배와의 대화, 휴식시간, PC방 문화

Ⅲ. 인용구문 사용 빈도

한국어 고급 학습자가 일상대화에서 인용구문을 사용한 빈도를 한국어 모어 화자가 일상대화에서 인용구문을 사용한 빈도와 비교해보면 표1과 같다.

표1을 보면 모어 화자 자료에서는 4,160개의 인용구문이 쓰였고 고급 학습자 자료에서는 316개의 인용구문이 쓰였음을 알 수 있다. 모어 화자의 자료가 고급 학습자의 일상대화 자료보다 6배 이상 규모가 큰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비교가 가능하도록 1,000어절당 인용구문을 사용한 빈도를 계산해보았다. 고급 학습자의 경우 1,000어절당 인용구문을 5.31회 사용하고 있으며, 모어 화자의 경우 10.86회 사용하고 있었다. 고급 학습자는 모어 화자에 비해 인용구문을 반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자료 규모의 차이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텍스트 유형이 일상대화라 같고 주제도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이러한 차이는 상당히 큰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고급 학습자가 인용구문을 사용해야 할 상황에서 충분히 사용하지 못함을 보여주는 결과로 파악된다.

표1-인용구문 사용 빈도 비교

구분	모어 화자 자료	고급 학습자 자료
어절 수	383,092개	59,539개
인용구문 수	4,160개	316개
1,000어절당 인용구문 사용 빈도	10.86회	5.31회

IV. 인용구문 사용 양상

1. 인용술어

인용동사를 주로 하는 인용술어를 분석해보았을 때⁶⁾, 한국어 모어 화자 자료에서는 총 90개의 인용술어가 사용되었고, 고급 학습자 자료에서는 총 22개의 인용술어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빈도 인용술어의 경우 고급 학습자 자료의 고빈도 인용술어의 항목 자체는 모어 화자 자료의 경우와 대부분 일치하나, 그 순위나 분포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어 화자 자료에서 고빈도 인용술어 8개와 고급 학습자 자료에서 2회 이상 출현한 인용술어 8개를 비교해보면 표2와 같다.

표2를 살펴보면 '보다'를 제외하고는 모어 화자 자료에서 고빈도로 나타난 인용술어들이 고급 학습자 자료에서도 모두 높은 빈도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빈도를 차지하는 인용술어의 순위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발견된다. 모어 화자 자료의 경우 1-3위가 포괄동사

표2-고빈도 인용술어 비교

순위	모어 화자 자료	고급 학습자 자료
1	그러다(1134회, 51.31%)	생각하다(85회, 37.12%)
2	이러다(324회, 14.66%)	하다(70회, 30.57%)
3	하다(267회, 12.08%)	듣다(17회, 7.42%)
4	생각하다(117회, 5.29%)	그러다(14회, 6.11%)
5	얘기하다(93회, 4.21%)	물어보다(11회, 4.80%)
6	말하다(28회, 1.27%)	말하다(8회, 3.49%)
7	물어보다(31회, 1.40%)	얘기하다(7회, 3.06%)
8	보다(24회, 1.09%)	얘기 듣다(3회, 1.31%)

6) 인용구문에서는 인용동사뿐 아니라 '소리를 지르다, 얘기를 듣다'와 같은 복합구성이나 '뿔대를 높다, 썰기를 막다'와 같은 관용표현들도 술어로 쓰인다(채숙희, 2011a). 이 연구에서 분석한 자료들에서도 이러한 예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인용동사'가 아닌 '인용술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채숙희, 앞의 논문(2011a).

‘그러다, 이러다, 하다’인 데 반해⁷⁾, 고급 학습자 자료에서는 2위 ‘하다’를 제외하고는 포괄동사가 아니라는 점이 큰 차이이다. 포괄동사 가운데 ‘하다’가 모어 화자 자료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그러다’보다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고급 학습자 자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⁸⁾ 이는 이효상(2005: 250-253)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인용구문을 ‘하다’ 위주로 교재에 제시한 데서 비롯된 문제로 파악된다. 포괄동사 가운데 모어 화자 자료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러다’의 경우, 고급 학습자 자료에서는 단 1회 쓰여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다.⁹⁾

7) ‘포괄동사’는 여러 인용동사를 대신하여 쓰이는 동사들을 가리킨다(이필영, 1993; 채숙희, 2010, 2011a). ‘하다’가 그 대표적인 동사로 다루어지는데, 이를 ‘대동사’라 부르기도 한다(이상복, 1983; 신선경 1986; 안경화 1995; 서정수, 1996). 채숙희(2010, 2011a)에서는 포괄동사에 ‘하다’ 외에 ‘그러다’와 ‘이러다’를 포함시켜 다루었다. 한편 채숙희(2010)에서는 2001년에서 2004년까지 구축된 21세기 세종계획의 현대구어말뭉치 가운데 ‘일상대화’ 파일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는데, ‘그러다, 이러다, 하다’와 같은 포괄동사가 가장 많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1년 12월에 배포된 21세기 세종계획의 최종성과물 가운데 현대구어말뭉치의 ‘일상대화’ 파일을 분석한 이 연구의 결과와 비교했을 때 구체적인 수치의 근소한 차이만 있을 뿐, 크게 다르지 않다. 이상복, 『한국어의 인용문 연구』, 『국어의 통사·의미론』(달출판사, 1983), 132-149쪽; 신선경, 『인용문의 구조와 유형분류』,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86); 이필영, 앞의 책; 안경화, 『한국어 인용구문의 연구: 유형과 융합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5); 서정수, 『국어 문법』(한양대학교 출판부, 1996); 채숙희, 『인용동사로 쓰이는 ‘이러다’, ‘그러다’ 연구』, 『국어학』 제58집(2010), 201-230쪽; 채숙희, 앞의 논문(2011a).

8) 표2에서 괄호 안에 표시한 비율(%)은 인용술어가 생략되거나 융합된 경우를 제외하고 인용술어가 문면에 나타난 경우만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비율이다. 인용술어가 생략되거나 융합된 경우를 제외하면 고급 학습자 자료에서는 인용술어가 229회 쓰였고, 모어 화자 자료에서는 2,210회 쓰였다.

9) 표2에 제시되지 않은 인용술어들을 모두 보이면 다음과 같다.
 고급 학습자 자료: 가르치다, 걱정하다, 고백하다, 나오다, 느끼다, 대답하다, 되다, 보다, 생각되다, 생각이 들다, 알다, 이러다, 자랑하다, (계획을) 짜다, 홍보하다(이상 1회, 0.44%).
 모어 화자 자료: 쓰다(19회, 0.86%), 치다(16회, 0.72%), 나오다(14회, 0.63%), 부르다(8회, 0.36%), 정하다, 되다, 얘기 듣다(이상 7회, 0.32%), 느끼다, 듣다(이상 5회, 0.23%), 생각이 들다, 이야기하다, 찍하다(이상 4회, 0.18%), 민다, 설명하다, 우기다, 전화하다(이상 3회, 0.14%), 가르치다, 고민하다, 따지다, 떠들다, 말씀드리다, 부탁하다, 생각되다, 시키다, 전하다, 전화 오다, 조르다, 칭찬하다, 평가하다, 화내다(이상 2회, 0.09%), 가정을 놓다, 가정하다, 각인시키다, 같듯 때리다, 강요하다, 강조하다, 개념을 잡다, 구박하다, 궁금해하다, 기대하다, 꼬시다, 나가다, 놀리다, 말씀하다, 말을 걸다, 말을 던지다, 말이 나오다, 문자가 오다, 바람을 넣다, 박다, 반성하다, 불다, 비난하다, 뺏치다, 선언하다, 소리 지르다, нада, 쓰다, 알리다, 알아듣다, 약속하다, 연락이 오다, 연락하다, 예상하다, 외우다, 유도하다, 이메일에 넣다, 이메일을 보내다, 이해가 되다, 이해하다, 일장연설을 하다, 자랑하다, 자부하다, 주입시키다, 질문하다, 칭찬받다, 캐묻다, 큰소리치다, 땡기다, 한마디 치다, 한마디 하다, 횡설수설하다(이상 1회, 0.05%).

이는 모어 화자들이 ‘이러다’를 구어 인용구문에 널리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들에게는 ‘이러다’가 인용술어로 제대로 인식이 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고빈도 인용술어의 분포 역시 다음과 같이 두 자료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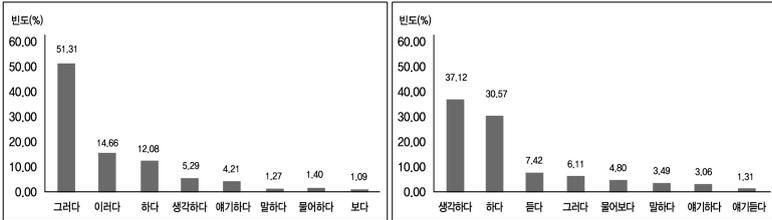


그림1-모어 화자(좌)와 고급 학습자(우)의 인용술어 분포

모어 화자 자료의 경우 1위인 ‘그러다’가 50% 이상 사용되고 2위인 ‘이러다’는 10%대로 급격히 빈도가 떨어지는 양상이다. 이에 반해 고급 학습자 자료에서는 1위인 ‘생각하다’와 2위인 ‘하다’가 모두 30%대로 큰 차이가 나지 않으며, 3위인 ‘듣다’에서 7% 수준으로 빈도가 급감하는 양상이다. 즉, 모어 화자는 ‘그러다’를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데 비해, 고급 학습자는 ‘생각하다’와 ‘하다’를 비슷한 비중으로 많이 쓰되 압도적으로 사용하지는 않고 있는 것이다.

2. 인용표지

인용표지를 사용한 비율을 보면 인용구문의 수에 비해 고급 학습자는 인용표지를 30% 가까이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모어 화자 자료의 경우 융합형을 제외한 3,055개 구문 가운데 인용표지가 한 번이라도 쓰인 경우가 1,294개로,

표3-인용구문 사용 빈도 비교

	모어 화자 자료	고급 학습자 자료
인용구문 수	3,055개	221개
인용표지가 사용된 인용구문의 수	1,294개(42.36%)	157개(71.04%)

전체 인용구문의 42.36%에서 인용표지가 쓰인 것으로 파악되었다.¹⁰⁾ 이에 반해, 고급 학습자 자료에서는 융합형을 제외한 221개 구문 가운데 인용표지가 한 번이라도 쓰인 경우가 157개로, 무려 71.04%의 인용구문에서 인용표지가 쓰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모어 화자에 비해 고급 학습자가 인용표지를 훨씬 자주 사용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중국어의 경우 ‘고, 라고, 라, 하고’와 같은 문법적 인용표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는 한국어교재에서 인용구문과 관련된 문형을 ‘다고 하다, -냐고 하다’ 등과 같이 피인용문의 종결어미, 인용표지, 인용동사가 결합된 형식으로 제시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즉, 이러한 문형을 하나의 단위로 파악하면서 인용표지를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하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인용표지의 유형별 사용 빈도의 경우, 인용표지 ‘라’를 제외하고는 고급 학습자 자료는 모어 화자 자료의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표4-인용표지 비교¹¹⁾

인용표지	모어 화자 자료	고급 학습자 자료
고	1,299회(92.85%)	197회(97.52%)
라고	69회(4.93%)	4회(1.98%)
라	27회(1.93%)	0회(0%)
하고	4회(0.29%)	1회(0.50%)
계	1,399회(100%)	202회(100%)

10) 융합형이 아니면서 인용표지가 쓰이지 않은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가) 나 가만 있으면 “난 내일 돈 벌러 가야 돼. 꺼. 나 피곤해.” 이란다.

(나) 할아버지가 나 보고 싶다 그랬는데.

위의 예들 가운데 (가)는 인용표지가 쓰이지 않은 직접인용구문의 예이고, (나)는 인용표지가 쓰이지 않은 간접인용구문의 예이다.

11) 표4에서는 다음 예와 같이 하나의 인용구문에 피인용문이 여러 개여서 인용표지가 여러 번 쓰인 경우 인용표지가 쓰인 횟수만큼 계산하여 제시하였다.

아니 아저씨, 뭐 하시는 거냐고 여기서 내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에 따라 표4에 제시한 인용표지 사용 빈도의 합계(각 1,399회, 202회)가 표3에 제시한 인용표지가 사용된 인용구문의 수(각 1,294개, 157개)보다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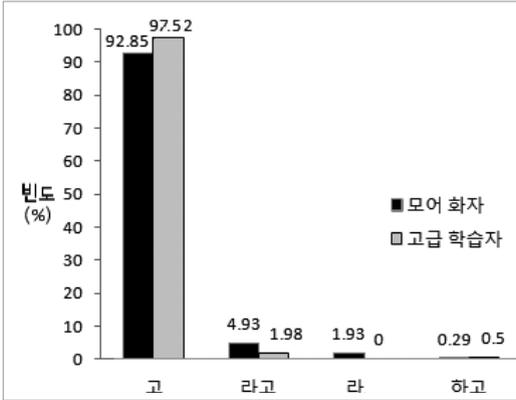


그림2-인용표지 비교

표4, 그림2를 보면 두 자료 모두에서 ‘고’가 90%가 넘는 압도적인 비율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고급 학습자가 모어 화자에 비해 5%로 가까이 ‘고’를 더 많이 쓰는 것으로 파악된다. ‘라’를 제외하고는 ‘고’, ‘라고’, ‘하’ 순으로 인용표지를 쓴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없으나, ‘라고’의 경우 모어 화자에 비해 고급 학습자의 사용 비율이 조금 낮은 편이다.

일부 교재만 분석한 것이기는 하나 채숙희(2011b)에서는 한국어교재의 대화문에서 인용표지의 출현 빈도를 조사한 바 있는데, 분석대상으로 삼은 교재들의 대화문에서 ‘고’가 96.5-100%의 높은 비율로 쓰이고, ‘라’는 모든 교재의 대화문에서 한 번도 쓰이지 않으며, ‘라고’는 3% 이하의 낮은 비율로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이는 표4에서 고급 학습자 자료가 보여주는 결과와 유사한데, 이는 교재에서의 처리가 고급 학습자의 인용표지 사용 양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모어 화자 자료에서는 간접인용 형식의 피인용문 다음에 인용표지 ‘라고’가 결합하여 ‘다라고, -자라고’와 같이 쓰이는 다음과 같은 예들도 보인다.

(3) 가. 뭐, 변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

나. 그리고 나서 한 번쯤 생각할 기회가 있으면은, 정말 우리 한민족 전체의 어떤 통일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를 한 거야.

모어 화자 자료에서는 ‘다라고’가 18회, ‘-자라고’가 1회 쓰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고급 학습자 자료에서는 이와 같은 예들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는 고급 학습자가 일상대화에서 인용표지를 사용하는 방식이 모어 화자의 경우와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쓰임이 간접인용의 오용으로 널리 지적된바 교재나 교육에서 제시되지 않은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구어에서는 ‘고, 라고, 하고’와 같은 인용표지들 외에 지시어 ‘이렇게, 그렇게’가 인용표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¹²⁾ 고급 학습자들 역시 이러한 ‘이렇게, 그렇게’의 역할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4) 가. 자기네 집에서는 “너 할 건 너두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른들 다른 어른들 모여 있으면 못 하게 해.
나. 그래서 번역할라고 갔었는데, 저기 교수님이 내가 “교수님은 담배 안 피우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근데 안 피운대.

(4가)는 모어 화자가 사용한 예이고, (4나)는 고급 학습자가 사용한 예이다. 두 예 모두에서 ‘이렇게’는 직접인용구문에 쓰여 선행하는 문장이 피인용문임을 보여주는 인용표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¹³⁾

이와 같이 ‘이렇게’와 ‘그렇게’를 인용표지와 같이 사용하는 현상은 모어 화자 자료에서보다 고급 학습자 자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표5, 그림3은 ‘이렇게’와 ‘그렇게’를 포함하여 인용표지의 유형별 사용 빈도를 보인 것이다.

표5- ‘이렇게’와 ‘그렇게’를 포함한 인용표지 비교

인용표지	모어 화자 자료	고급 학습자 자료
고	1,299회(88.79%)	197회(82.43%)
라고	69회(4.72%)	4회(1.67%)
라	27회(1.85%)	0회(0%)
하고	4회(0.27%)	1회(0.42%)
이렇게	49회(3.35%)	25회(10.46%)
그렇게	15회(1.03%)	12회(5.02%)
계	1,463회(100%)	239회(100%)

12) 채숙희, 앞의 논문(2010); 채숙희, 앞의 논문(2011a).

13) 채숙희(2010, 2011a)에서는 전형적인 인용표지에 비해 ‘이렇게, 그렇게’와 같은 지시어가 주로 직접인용구문에 쓰임을 지적한 바 있다. 채숙희, 앞의 논문(2010); 채숙희, 앞의 논문(2011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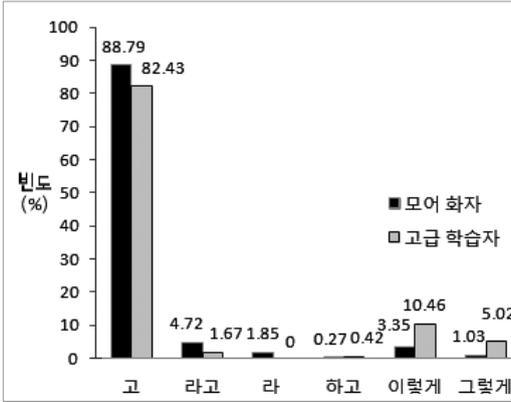


그림3-‘이렇게’와 ‘그렇게’를 포함한 인용표지 비교

모어 화자 자료에서는 인용표지와 같이 쓰이는 ‘이렇게’가 49회, ‘그렇게’가 15회 사용되어 전체 인용표지의 4.37%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고급 학습자 자료에서는 ‘이렇게’가 25회, ‘그렇게’가 12회 사용되어 전체 인용표지의 15.4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교재에서 교수 항목으로 설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고급 학습자들이 ‘이렇게’와 ‘그렇게’를 많이 쓰는 것은 이들이 한국어 구어에 노출된 기간이 적지 않은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¹⁴⁾

3. 인용방식

전통적으로 인용방식은 직접인용과 간접인용으로 구분되어왔다. 직접인용은 원화자의 말을 원발화 상황대로 전달하는 방식이고, 간접인용은 이를 인용 시점의 발화 상황에 맞추어 전달하는 방식이다.¹⁵⁾ 한국어의 경우, 직접인용과 간접인용은 화시의 전환, 억양과 휴지, 발화수행적 요소, 피인용문의 언어적 형식, 문장종결법과 상대높임법의 제약에 의해 구분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¹⁶⁾ 한국어 구어에서는 직접인용과 간접인용 외에 다음과 같이 이들의 중간적인 방식도 존재함이 논의된 바 있다.

14) 아울러 중국어 구어의 영향도 있을 것으로 짐작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15) Coulmas, F., Reported speech: Some general issues, In F. Coulmas(ed.), *Direct and Indirect Speech*, Berlin; New York; Amsterdam: Mouton de Gruyter(1986), p. 2.

16) 채숙희, 앞의 논문(2011a), 13-20쪽.

(5) 우리 엄마가 안이, 우리 세현이 아니면 우리 집은 옷을 일이 없다구 그런단 말야.

채숙희(2011a: 24-28)에서는 이와 같이 피인용문의 문장종결법 및 상대높임법은 간접인용과 같으나 인칭대명사나 지시어, 발화수행적 요소는 직접인용과 같은 특성을 보이는 경우를 반직접인용으로 파악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를 따라 한국어 구어에 쓰이는 인용방식을 직접인용, 간접인용, 반직접인용으로 구분하여 모어 화자의 자료와 고급 학습자의 자료를 비교해보면 표6, 그림4와 같다.¹⁷⁾

이 자료들을 보면 모어 화자에 비해 고급 학습자는 간접인용을 20% 가까이 많이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어 화자의 경우 간접인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직접인용의 사용 비율도 38.31%나 된다. 이에

표6-인용방식의 비교

인용방식	모어 화자 자료	고급 학습자 자료
직접인용	1,755회(38.31%)	71회(18.49%)
간접인용	2,662회(58.11%)	297회(77.34%)
반직접인용	164회(3.58%)	16회(4.17%)
계	4,581회(100%)	384회(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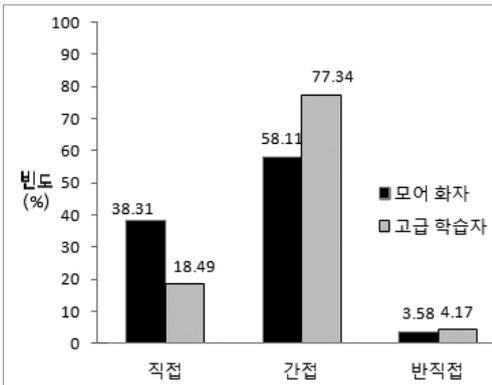


그림4-인용방식의 비교

17) 표6에서 모어 화자 자료와 고급 학습자 자료에서의 합계(각 4,581회, 384회)가 표1에서 제시한 인용구문의 개수의 합(각 4,160개, 316개)보다 많은 것은, 하나의 인용구문에 피인용문이 여러 개인 경우 각각의 피인용문마다 적용된 인용방식을 하나씩 계산하였기 때문이다.

비해 고급 학습자들은 간접인용에 치중하여 직접인용은 모어 화자의 반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한국어교재에서 인용구문과 관련된 교수항목이나 대화문이 간접인용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¹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¹⁹⁾

반직접인용의 경우 고급 학습자가 모어 화자와 유사한 비율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보았을 때 반직접인용은 별도의 교수항목으로 설정되지 않아도 학습자가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인용방식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인용구문에서 피인용문으로 실현되는 인용의 대상은 발화일 수도 있고, 내적인 사유나 인식, 지각과 같은 인지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모어 화자 자료와 학습자 자료를 비교해 보면 표7과 그림5와 같다.

표7-인용대상에 따른 비교

인용대상	모어 화자 자료	고급 학습자 자료
발화	3,871회(93.05%)	260회(72.02%)
인지 내용	289회(6.95%)	101회(27.98%)
계	4,160회(100%)	361회(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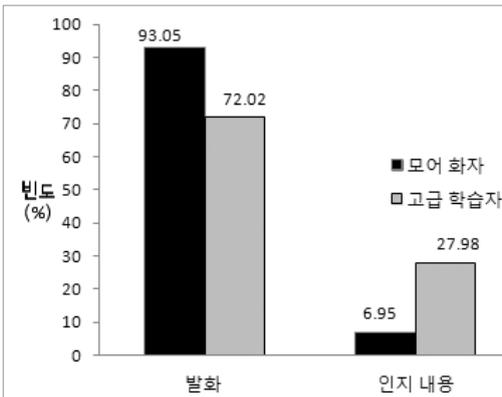


그림5-인용대상에 따른 비교

18) 채숙희, 앞의 논문(2011b).

19) 또한 학습자들의 모어인 중국어의 영향도 있을 수 있겠으나, 중국어의 경우 직접인용이 더 많이 쓰인다는 지적도 있어(서아경, 2012: 3)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서아경, 「중국어와 한국어의 인용표현 대조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2).

이 자료들을 보면 발화의 전달에 인용구문을 사용하는 비율이 모어 화자에 비해 고급 학습자가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다. 고급 학습자들은 인지 내용의 표현에 인용구문을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모어 화자가 인지 내용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다른 방식 대신에 고급 학습자들이 인용구문을 선택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²⁰⁾

인용대상이 발화인가 인지 내용인가에 따라 모어 화자 자료와 고급 학습자 자료에서 나타나는 인용방식도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으므로, 각각의 경우를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발화를 인용대상으로 하는 경우 두 자료의 인용방식 차이를 비교해 보면 표8, 그림6과 같다.

이 자료들을 보면 모어 화자의 경우 발화를 전달할 때 간접인용을 더 많이 쓰고 있지만, 직접인용도 적지 않은 비율로 사용하고 있어 두 인용방식의 차이가 20% 정도이다. 이에 비해 고급 학습자의 경우에는

표8-발화 인용의 인용방식 비교

인용방식	모어 화자 자료	고급 학습자 자료
직접인용	1,588회(37.29%)	45회(16.13%)
간접인용	2,509회(58.91%)	220회(78.85%)
반직접인용	162회(3.80%)	14회(5.02%)
계	4,259회(100%)	279회(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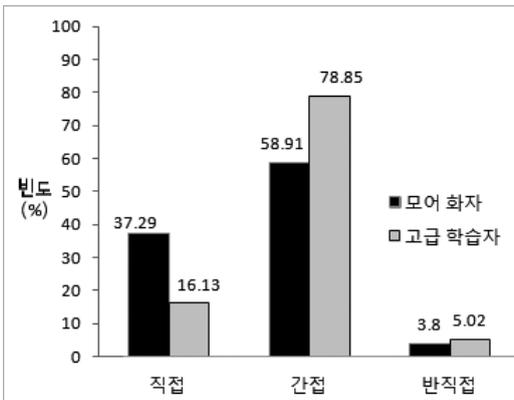


그림6-발화 인용의 인용방식 비교

20) 보다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모어 화자는 인지 내용을 표현할 때 인용구문 외에도 ‘-겠-, -(으)ㄹ 것이다, -(으)ㄹ 것 같다, -(으)ㄹ까 싶다’와 같은 추측 표현을 사용할 것으로 짐작된다.

직접인용에 비해 간접인용을 60% 이상 많이 쓰고 있다. 반직접인용의 경우에는 고급 학습자가 오히려 더 높은 비율로 쓰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렇게 보았을 때 발화 전달을 목적으로 한 인용구문의 교육에 있어 직접인용을 좀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

표9, 그림7에서와 같이 인지 내용을 인용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고급 학습자의 간접인용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더 두드러진다.

모어 화자의 경우에는 인지 내용을 표현할 때 직접인용과 간접인용의 사용 비율이 비슷하며, 오히려 직접인용의 비율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고급 학습자는 인지 내용을 표현할 때도 여전히 간접인용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모어 화자 자료에서 쓰이는 다음 예와 같이 직접인용의 방식으로 인지 내용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학습자들을 지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 (6) “재네들은 무슨 돈이 있어서 맨날 저렇게 입고 다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번 돈으로 그렇게 쓰더라구요.

표9-인지 인용의 인용방식 비교

인용방식	모어 화자 자료	고급 학습자 자료
직접인용	167회(51.86%)	26회(24.76%)
간접인용	153회(47.52%)	77회(73.33%)
반직접인용	2회(0.62%)	2회(1.90%)
계	322회(100%)	105회(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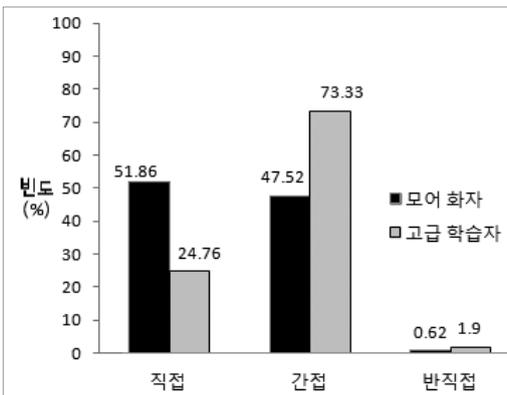


그림7-인지 인용의 인용방식 비교

4. 융합형과 절단형

간접인용구문에서는 ‘대, -내, -래, -재와 같이 피인용문의 종결어미와 인용동사 ‘하다’ 사이에 융합이 가능하다. 또한 피인용문과 인용표지만 남고 인용술어가 절단되는 절단형 역시 간접인용구문에 적용되는 방식이다.

(7) 가. 그래서 언니들이 막, 친구들이랑 선생님한테 편지를 쓴대.

나. “이걸 누가 근무복이라고 주던가요?” 그랬더니 부인께서 콜라켰다고.

(7가)에서는 피인용문의 종결어미 ‘다’와 인용동사 ‘하다’ 사이에 융합이 이루어진 융합형 ‘대’가 쓰였다. (7나)에서는 인용술어는 절단되고 피인용문과 인용표지 ‘고’만 남아 문장이 ‘다고’로 종결된 절단형이 쓰였다. 이와 같은 융합형과 절단형은 형태의 차이가 있지만 융합이나 절단 이전의 형식으로 환원이 가능하여 그 의미는 차이가 없다.²¹⁾

이러한 융합형과 절단형은 구어 인용구문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이들을 고급 학습자 자료를 모아 화자 자료와의 비교하여 살피는 것은 고급 학습자들이 모여 화자와 비교하여 얼마나 구어적으로 인용구문을 운용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우선, 모아 화자 자료와 고급 학습자 자료에서 융합형의 사용 양상을 비교하여 제시하면 표10과 같다.

자료 규모의 차이가 있는 만큼 융합형의 형태 수나 빈도 자체는 모아 화자 자료에서 훨씬 많이 나타난다. 그러나 빈도의 경우 융합형을 사용하는 비율을 계산해보면 두 자료에서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모아 화자와

21) 융합형과 절단형 가운데는 융합이나 절단 이전의 형식으로 환원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이들은 통사·의미적인 변화로 인해 더 이상 인용구문으로 보기는 힘들다.
가. 내가 너보다 더 기쁘단다.(남기심, 1973: 121)
가'. *내가 너보다 더 기쁘다고 한다.
나. 철수도 벌써 숙제를 다 했다구.(이필영, 1993: 174)
나'. *나는 철수도 벌써 숙제를 다 했다구 했다.
이필영(1993)에서는 이전 형식으로의 환원이 가능한 경우를 ‘환원적 융합’, ‘환원적 절단’이라고 하고, 환원이 불가능한 경우를 ‘비환원적 융합’, ‘비환원적 절단’이라고 하였다. 여기에서는 비환원적 융합과 절단의 경우는 제외하고 (7)에서와 같은 환원적 융합과 절단의 경우만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다. 남기심, 『국어완형보문법연구』(탑출판사, 1973); 이필영, 앞의 책.

표10-융합형 비교

융합형	모어 화자 자료	고급 학습자 자료
형태 수	51개	8개
빈도	1,105회(26.56%)	95회(26.32%)

고급 학습자가 비슷한 비율로 융합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모어 화자 자료와 고급 학습자 자료에서 사용된 융합형 형태를 고빈도 순으로 비교해보면 표11과 같다.²²⁾ 이는 모어 화자 자료에서 1%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융합형 형태와 고급 학습자 자료에 쓰인 융합형 형태를 비교한 것인데, 두 자료에서 1, 2위는 ‘-대’와 ‘-대요’로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비율에는 큰 차이가 있어 모어 화자의 경우 ‘-대’가 전체 융합형의 절반을 조금 넘으나, 고급 학습자의 경우 90% 가까이 쓰여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고급 학습자 자료에서는 ‘-대’와 ‘-대요’ 외의 형태는 단 1회씩밖에 쓰이지 않았는데, 이 가운데 ‘-다는데’와 ‘-래’를 제외한 나머지 형태는 모어 화자 자료에서 1% 이상 쓰인 형태가 아니다. 이는 ‘-대’와 ‘-대요’ 이외의 고빈도 형태를 중심으로 융합형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의미한다.

표11-융합형 형태의 고빈도순 비교

순위	모어 화자 자료	고급 학습자 자료
1	-대(621회, 56.20%)	-대(84회, 88.42%)
2	-대요(165회, 14.93%)	-대요(4회, 4.21%)
3	-다는(54회, 4.89%)	-(더)래, -다는데, -다며, -라지, -래, -됐 다, -자는(1회, 1.05%)
4	-다는데(36회, 3.26%)	
5	-래(35회, 3.17%)	
6	-내(15회, 1.36%)	
7	-다더라, -다잖아(16회, 1.45%)	
8	-라는(14회, 1.27%)	
9	-래요, -다니까, -다던데(11회, 1%)	

22) 표11에서 명사 다음에 쓰이는 ‘-래, -래요, 라는’ 등은 ‘-대, -대요, -다는’ 등에 포함시켜 처리하였다. ‘-대는, -다더라, -다니까’ 등의 구어적 변이형도 ‘-다는, -다더라, -다니까’와 같은 기본형과 함께 다루었다.

절단형의 경우, 모어 화자 자료에서는 453회, 고급 학습자 자료에서는 29회 쓰였다. 전체 인용구문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해보면 각각 10.89%와 8.03%로, 고급 학습자가 모어 화자에 비해 조금 적은 비율로 절단형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V. 맺음말

이상과 같이 이 연구에서는 중국어권 고급 학습자의 일상대화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인용구문 사용 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한국어 모어 화자의 경우와 비교해보았다. 이를 통해 파악된 고급 학습자의 인용구문 사용에서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인용구문 사용 빈도에서 고급 학습자는 모어 화자에 비해 인용구문을 반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용술어의 경우, 고급 학습자 자료의 고빈도 인용술어의 항목 자체는 모어 화자 자료의 경우와 대부분 일치하나, 그 순위나 분포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였다. 모어 화자 자료의 경우 1-3위가 포괄동사 ‘그러다, 이러다, 하다’인 데 반해, 고급 학습자 자료에서는 2위 ‘하다’를 제외하고는 포괄동사가 아닌 ‘생각하다’와 ‘하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포에서도 모어 화자는 ‘그러다’를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데 비해, 고급 학습자는 ‘생각하다’와 ‘하다’를 비슷한 비중으로 많이 쓰고 있었다. 인용표지의 경우, 고급 학습자는 인용표지를 모어 화자보다 무려 30% 가까이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용표지의 유형별 사용 빈도는 ‘고’가 90%가 넘는 압도적인 빈도로 쓰이는 등, 고급 학습자 자료가 모어 화자 자료와 거의 유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인용방식의 경우, 모어 화자에 비해 고급 학습자는 간접인용을 20% 가까이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어 화자의 경우 간접인용 사용 비율이 더 높기는 하나 직접인용의 사용 비율도 40% 가까이 되는 데 반해, 고급 학습자들은 간접인용에 치중하여 직접인용은 모어 화자의 반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융합형의 경우, 두 자료 모두에서 빈도 1, 2위는 ‘대’와 ‘대요’로 일치하였으나 그 비율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모어 화자의 경우 ‘대’가 전체 융합형의 절반을 조금 넘으나, 고급 학습자의 경우

90% 가까이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고급 학습자 자료에서는 ‘대’와 ‘대요’ 외의 형태는 거의 쓰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절단형의 경우, 모어 화자 자료와 고급 학습자 자료에서의 사용 비율에 큰 차이가 없었다.

이와 같이 고급 학습자의 일상대화에서의 인용구문 사용 양상을 모어 화자의 경우와 비교하여 분석해보았을 때, 인용구문 교육, 특히 구어의 인용구문 교육에 있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인용구문 사용 빈도가 낮은 고급 학습자가 모어 화자와 같이 인용구문을 충분히 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형태 중심적 지도보다는 인용의 상황과 기능을 중심으로 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²³⁾ 기존의 논의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그간 형태에 집중하여 인용구문을 교육해왔기 때문에 실제로 모어 화자가 인용구문을 사용하는 상황에서도 고급 학습자는 인용구문을 사용하지 못하여 사용 빈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둘째, 구어를 사용할 때는 구어에 적합한 인용구문을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하다’ 외에 ‘그러다’를 인용동사로서 강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다’의 경우 모어 화자는 인용동사로 자주 사용하고 있었으나 고급 학습자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만큼, ‘하다’와 ‘그러다’뿐 아니라 ‘이러다’도 인용동사로 인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셋째, 상대적으로 인용표지를 자주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으므로 고급 학습자들에게 인용표지를 사용하지 않고도 인용구문 형성이 가능함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고급 학습자들의 간접인용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인용방식 가운데 직접인용을 좀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대’와 ‘대요’ 외에 다양한 융합형 형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모어 화자와 달리 고급 학습자들은 융합형을 ‘대’와

23) 김정은(2008)을 비롯하여, 강현화·황미연(2009), 이금희(2009), 김지혜(2011), 윤현애·윤정원(2012)에서는 형태 중심 교육을 넘어 전달, 확인, 불평, 증거 제시 등과 같은 인용구문이 수행하는 기능에 교육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인용의 상황과 기능을 중심으로 인용구문을 교육할 때에 이러한 연구들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교육 방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은, 앞의 논문; 강현화·황미연, 앞의 논문; 이금희, 앞의 논문; 김지혜, 앞의 논문; 윤현애·윤정원, 앞의 논문.

‘대요’만 집중적으로 쓰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적용한 접근방식은 인용구문과 관련하여 고급 학습자와 모어 화자의 실제 자료를 분석, 비교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는 점, 문어 자료가 아닌 구어 자료에 근거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논의와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다룬 두 자료는 규모 면에서 차이가 있어 고급 학습자 자료의 규모를 늘릴 경우 다소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다른 언어권의 고급 학습자 자료를 구축하여 분석할 경우 이 연구에서 분석한 중국어권 고급 학습자와는 다른 양상이 포착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고급 학습자 자료의 추가적인 구축과 이에 기반한 분석, 다른 언어권 고급 학습자 자료의 분석과 비교를 더한다면 구어 인용구문 교육과 관련하여 보다 진전된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강현화·황미연, 「한국어 교육을 위한 불평표현 문형 연구: 불평화행과 인용표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말연구』 제24호, 2009, 5-31쪽.
- 고경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에 나타난 간접인용 표지 ‘-고’의 검토」. 『한국어 의미학』 33집, 2010, 1-17쪽.
- 관학걸, 「입력강화와 출력강화가 한국어 간접인용문 학습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권재일, 「한국어 인용구문 유형의 변화와 인용표지의 생성」. 『언어학』 22권, 1998, 59-79쪽.
- 김순일, 「한국어 간접인용문의 효과적인 교육 방안 연구: 중국인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김정은, 「한국어 인용 표현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김지혜, 「그림 보고 말하기를 통한 한국어 학습자의 간접인용 표현 교육 연구」. 『동남어문논집』 제30집, 2010, 359-381쪽.
- _____, 「담화 분석을 통한 한국어 간접인용 표현 교육 방안 연구」. 『이중언어학』 제46호, 2011, 45-65쪽.
- 김현숙, 「간접인용문에서 의문문의 실현 양상과 한국어 교육에의 적용 문제」. 『어문연구』 제70집, 2011, 29-52쪽.
- 남기심, 『국어완형보문법연구』. 탑출판사, 1973.
- 서아경, 「중국어와 한국어의 인용표현 대조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서유연, 「시각적 입력강화가 한국어 문법 학습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간접인용 표현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서정수, 『국어 문법』. 한양대학교 출판부, 1996.
- 신선경, 「인용문의 구조와 유형 분류」.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 안경화, 「한국어 인용구문의 연구: 유형과 융합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 윤현애·윤정원, 「한국어 인용 표현의 담화 기능에 관한 연구: 토론 담화의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문법교육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2, 1-13쪽.
- 이금희, 「한국어 교육에서의 간접인용문 변형」. 『반교어문연구』 26집, 2009, 81-102쪽.
- 이상복, 「한국어의 인용문 연구」. 『국어의 통사·의미론』, 탑출판사, 1983, 132-149쪽.
- 이운정,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간접인용표현 교육 방안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이필영, 『국어의 인용구문 연구』. 탑출판사, 1993.
- 이효상,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재와 문법 교육의 문제점」. 『국어교육연구』 제16집, 2005, 241-270쪽.

장미라, 「한국어 인용문의 교육 내용 선정과 배열에 관한 연구」. 『이중언어학』 제38호, 2008, 419-438쪽.

채숙희, 「인용동사로 쓰이는 ‘이러다’, ‘그러다’ 연구」. 『국어학』 제58집, 2010, 201-230쪽.

_____, 「현대 한국어 인용구문 연구: 구어 자료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1a.

_____, 「한국어 교재의 인용구문 분석: 구어 교육의 관점에서」. 『언어학 연구』 제25호, 2011b, 303-322쪽.

한정, 「한·중 인용법 대비 연구: 간접인용을 중심으로」. 인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황양희, 「외국인 학습자의 간접인용 교육 방안 연구」. 군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Coulmas, F., Reported speech: Some general issues, in F. Coulmas(ed.), *Direct and Indirect Speech*, Berlin; New York; Amsterdam: Mouton de Gruyter, 1986, pp. 1-28.

Jespersen, O., *The Philosophy of grammar*. London; New York: Allen: Holt, 1924.

국 문 요 약

이 연구에서는 일상대화에서 중국어권 고급 학습자의 인용구문 사용 양상을 한국어 모어 화자의 경우와 비교하여 분석함으로써 고급 학습자의 인용구문 사용에서의 특성을 파악하고 인용구문 교육에서의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고급 학습자들은 모어 화자에 비해 인용구문의 사용 빈도가 낮았으며, '하다'를 제외하고는 '그러다'와 '이러다'와 같이 모어 화자가 가장 많이 쓰는 인용동사를 충분히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용표지를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로 사용하고 인용방식 가운데 간접인용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 -대요, -다는, -다는데'와 같은 융합형, '다고, 냐고'와 같은 절단형은 모어 화자와 비슷한 비율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융합형의 경우 '대'와 '대요'만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보았을 때, 구어에서의 인용구문 교육에 있어 우선 학습자가 인용구문을 모어 화자 수준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과 같은 형태 중심적 지도보다는 인용의 상황과 기능을 중심으로 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하다' 외에 '그러다'를 인용동사로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이러다' 역시 인용동사로 인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인용표지를 사용하지 않고도 인용구문 형성이 가능함을 주지시키고, 인용방식 가운데 직접인용을 좀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융합형의 경우, '대'와 '대요' 외에 다양한 융합형 형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투고일 2013. 6. 20.

심사일 2013. 7. 29.

게재 확정일 2013. 8. 5.

주제어(keyword) 고급 학습자(advanced learner), 일상대화(daily conversation), 인용구문(quotative construction), 사용 양상(usage pattern), 구어(spoken language)

